

야구

8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선배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 '동명이인' 박찬호·이승호·김민우의 맹활약

“이젠 우리가 포털서 먼저 검색”

KIA 박찬호, 타율 0.341로 커리어하이 키움 이승호, 제구력 앞세워 첫 완봉승 한화 김민우, 선배와 맞대결 승리 경험

1982년에 첫 선을 보인 KBO리그는 수많은 선수들이 엔트리 등록과 말소를 반복했다. 퓨처스리그(2군) 선수들까지 더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인원이 한국야구의 현장을 함께 했다. 사람이 모여 만든 현장이기에 흥미로운 '우연의 인연'도 적지 않게 겹쳐 지나간다. 그리고 그 인연은 올해 유독 더 짙게 도드라지고 있다. 바로 동명이인들의 연이은 활약이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24)는 올 시즌 소속팀에서 가장 독보적인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원이자. 입단 후 줄곧 백업 내야수로 활약했던 그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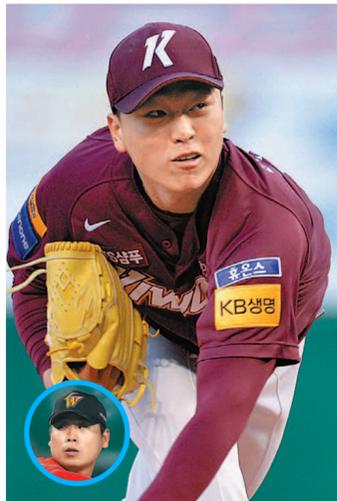
21일까지 37경기에서 타율 0.341를 기록 중이고, 이전까지 단 한 개도 없었던 홈런도 올해는 벌써 두 개나 때렸다. 수비에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코칭스태프의 무한 신뢰를 받는 중이다. 그야말로 박찬호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이름에서 단번에 알 수 있듯이 '박찬호' 세 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코리안투프' 박찬호(46)다. 그는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선배의 아성에 가려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KIA 박찬호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해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검색하면 항상 박찬호 선배님이 먼저 나와 있더라”라며 웃었다. 그러나 박찬호의 이런 소원은 자신의 활약 덕분에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박찬호'를 검색하면, KIA 박찬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올 시즌 KBO리그는 유명 선배들과 이름이 같은 후배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키움 히어로즈의 차세대 좌완 선발 이승호도 안정방반는 실력파다. 한화 이글스 우완 김민우(왼쪽부터)도 꾸준히 명성을 쌓고 있다. 작은 사진은 동명이인의 선배들. 스포츠동아DB



올 시즌 KBO리그는 유명 선배들과 이름이 같은 후배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키움 히어로즈의 차세대 좌완 선발 이승호도 안정방반는 실력파다. 한화 이글스 우완 김민우(왼쪽부터)도 꾸준히 명성을 쌓고 있다. 작은 사진은 동명이인의 선배들. 스포츠동아DB



올 시즌 KBO리그는 유명 선배들과 이름이 같은 후배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고 키움 히어로즈의 차세대 좌완 선발 이승호도 안정방반는 실력파다. 한화 이글스 우완 김민우(왼쪽부터)도 꾸준히 명성을 쌓고 있다. 작은 사진은 동명이인의 선배들. 스포츠동아DB

박기택 심판위원 통산 2000경기 출장

KBO 박기택 심판위원이 22일 잠실에서 열린 SK 와이번스-LG 트윈스전에서 구심을 맡아 개인통산 20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역대 KBO 리그에서 2000경기에 출장한 심판위원은 1999년 이규석 심판위원을 시작으로 박기택 심판위원이 통산 11번째다. 1999년 9월 1일 대구시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삼성 라이온즈전에서 3루심으로 KBO 리그 1군 경기에 첫 출장한 박기택 심판위원은 2009년 6월 13일 광주 무등 한화 이글스-KIA 타이거즈전에서 1000경기, 2014년 9월 5일 잠실 두산 베어스-LG전에서 15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KBO는 2000경기에 출장한 박기택 심판위원에게 표창규정에 의거,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앞세워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다. 차세대 좌완 선발로 크게 각광 받고 있는 투수다. 공교롭게도 선배 이승호와 마찬가지로 좌완투수라는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다.

한화 이글스 우완투수 김민우(24) 역시 동명이인 선배가 있다. 바로 KIA에서 지도자로 제 2의 야구인생을 살고 있는 김민우 수비코치(40)다. 둘은 프로 현역으로 뛰 시기가 겹쳐 맞대결 인연도 있다. 한화 김민우가 루키였던 2015년, 김민우 현 코치가 KIA에서 현역으로 뛸 때 1타수 무안타

를 기록했다. 이처럼 KBO리그 동명이인의 인연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연이 먼 '미래'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제 3의'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선배들은 명성을 쌓고, 후배들은 그 아성을 뛰어넘으려 하는 시도. KBO리그의 앞날을 위해 기본 좋은 동기부여일 수밖에 없다.

김민우 현 코치가 KIA에서 현역으로 뛸 때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이처럼 KBO리그 동명이인의 인연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연이 먼 '미래'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제 3의'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선배들은 명성을 쌓고, 후배들은 그 아성을 뛰어넘으려 하는 시도. KBO리그의 앞날을 위해 기본 좋은 동기부여일 수밖에 없다.

sports21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1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경기차	타율	홈런	홈런	득점	실점	승률	타율	홈런	득점
1	두산	43	16	0	0.673	-	1매	0.280	3.11	0.692	271	176	38	32	26	2
2	SK	48	31	16	0.660	1.0	승	0.256	3.79	0.542	233	202	47	40	32	2
3	NC	47	28	19	0.596	4.0	승	0.292	4.02	0.600	260	215	56	24	36	3
4	키움	50	28	22	0.560	5.5	패	0.290	4.38	0.640	290	230	35	36	33	3
5	LG	47	25	22	0.532	7.0	패	0.257	3.46	0.591	191	193	26	35	28	3
6	한화	47	22	25	0.468	10.0	패	0.253	5.08	0.625	233	251	38	38	31	3
7	KT	49	20	29	0.408	13.0	승	0.270	4.81	0.522	215	261	34	33	43	3
8	삼성	47	19	28	0.404	13.0	승	0.263	4.39	0.435	230	233	42	40	42	3
9	롯데	48	17	31	0.354	15.5	패	0.264	6.14	0.440	232	314	32	17	42	3
10	KIA	48	16	31	0.340	16.0	승	0.256	5.58	0.318	204	284	24	26	27	3

•Before & After 7-Game

팀	1화	1.5화	16화	17화	18화	19화	21화	22화	23화	24화	25화	26화	28화	29화
SK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한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키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KI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삼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롯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G	0	0	0	0	0	0	0	0	0	0	0	0	0	0
NC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타석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타율	4사	삼진	실책	득점	OPS
1	양희지	NC	0.385	44	148	57	9	26	33	2	30	18	1	0.391	1.125
2	최민준	두산	0.345	49	197	68	9	35	43	0	23	18	3	0.365	0.960
3	김하성	키움	0.339	45	183	62	6	43	35	9	28	32	9	0.339	0.939
4	박건우	두산	0.326	49	181	59	4	33	28	5	22	3	0	0.381	0.870
5	이대호	롯데	0.324	48	182	59	8	27	47	0	21	22	0	0.365	0.912
6	선즈 키움	키움	0.320	50	194	62	6	38	47	0	32	35	1	0.371	0.927
7	박병호	키움	0.313	45	163	51	11	38	34	0	36	42	2	0.292	1.002
8	이정후	키움	0.312	48	205	64	3	31	24	6	17	16	1	0.313	0.809
9	박세혁	두산	0.312	47	157	49	1	21	22	2	16	26	2	0.300	0.836
10	리 프랑수아	SK	0.311	38	132	41	6	20	32	0	30	26	3	0.316	0.970
11	채은성	LG	0.308	45	169	52	2	13	19	0	10	27	0	0.300	0.732
12	김태환	K	0.308	49	195	60	6	32	27	4	22	42	1	0.288	0.843
13	김태환	한화	0.304	38	125	38	1	19	14	3	27	28	0	0.219	0.809
14	손아섭	롯데	0.304	46	181	55	3	30	27	5	18	33	2	0.296	0.798
15	로하스	K	0.303	49	188	57	8	20	34	3	22	52	4	0.284	0.858
16	서건창	키움	0.302	50	192	58	4	34	17	25	17	3	0.314	0.759	
17	김재환	두산	0.302	49	179	54	8	34	40	1	24	47	0	0.362	0.883
18	김민혁	K	0.300	44	140	42	0	22	9	6	12	18	3	0.214	0.682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경기	타수	피홈런	경기	안타	실점	자책	승	패	승률	실점	승진	4사	피타율	WHIP
1	린드블럼	두산	1.48	10	67.0	12	11	0	0	52	3	61	10	0.210	0.90		
2	윌슨	LG	1.83	11	73.2	15	4	3	0	60	1	53	19	0.224	1.00		
3	루빈슨	NC	2.00	10	63.0	19	14	4	2	40	2	46	20	0.179	0.87		
4	엘리	LG	2.17	10	62.1	22	15	3	0	50	1	53	21	0.219	1.06		
5	산체스	S	2.26	9	55.2	17	14	5	2	40	0	51	15	0.236	1.13		
6	이명하	두산	2.37	9	57.0	16	15	5	0	40	0	24	34	0.201	1.21		
7	알칸타라	K	2.38	9	64.1	18	17	5	3	0	56	4	37	0.236	1.01		
8	후광호	두산	3.02	10	59.2	20	20	4	3	0	55	3	53	21	0.244	1.14	
9	김광현	S	3.25	11	63.2	25	23	7	1	0	77	5	73	15	0.298	1.43	
10	박종훈	S	3.38	10	50.2	22	19	1	2	0	60	4	37	22	0.300	1.52	
11	차우찬	LG	3.49	10	60.2	22	20	5	2	0	50	2	43	20	0.270	1.39	
12	요키시	키움	3.71	10	60.2	26	25	4	1	0	49	4	53	15	0.219	1.01	
13	유희관	두산	3.73	9	50.2	25	21	2	3	0	56	2	26	15	0.283	1.34	
14	다익손	S	3.74	10	55.1	24	23	3	2	0	54	6	42	17	0.254	1.25	
15	박진우	NC	3.79	10	54.2	24	23	3	3	0	60	7	35	19	0.283	1.39	
16	문승환	S	3.83	8	49.1	21	21	3	2	0	48	39	11	0.250	1.18		
17	채드웰	한화	4.03	10	60.1	29	27	5	4	0	65	4	47	31	0.285	1.51	
18	버틀러	NC	4.21	9	51.1	31	24	3	4	0	56	5	33	18	0.272	1.42	

※ 피타율 : 안타+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이닝

프로야구 기록표 (22일)

•NC-키움

고척	키움	0	0	1	0	3	0	0	0	0	2	2	3	3	7	2
NC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키움	0	0	1	0	3	0	0	0	0	0	0	0	0	0	0	0

NC	1	2	3	4	5	6	7	8	9	타	득	실	타	실
박민우	유망													
김태진	유망													
노진영	유망	유망	유망	유망										